

적절한 처방과 꾸준한 치료가 결핵 치료의 핵심

글 김세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중증 결핵성 폐렴 환자의 완치 사례

얼마전 43세 남자 환자가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다. 두 달 전부터 고열과 가래, 기침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객담 도말 검사상 결핵균이 확인되었으며 활동성 폐결핵 진단 하에 스트렙토마이신,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마이암부톨 등으로 항결핵 치료를 하였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환자의 직업은 목사로 과거력상 특별한 병력은 없었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 2개월 동안 음식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환자는 본원에 입원한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39.3℃의 고열이 계속되고 식욕부진, 전신쇠약, 기침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본 후 주치의는 중증 결핵성 폐렴이 광범위하기 때문

에 증상이 빨리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동일한 항결핵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환자도 이러한 주치의의 판단을 신뢰하고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서 기다린 결과 입원 1개월경부터 흉부 X-선 사진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두 차례 있던 고열도 감소하고 전신 상태가 점차 좋아져서 입원한지 1개월 만만에 퇴원하였다. 퇴원 후 환자는 외래에서 항결핵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치료 기간 1년 만에 완치되었다.

균에 감염되어도 5~10%만 발병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옮겨지는 전염병으로 흔히 피를 토하는 폐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환자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결핵은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또는 말을 할 때 나온 균이 공

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에 들어가 전염된다. 그러나 결핵균에 의해 감염이 되더라도 면역 기능이 정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생기지 않고 감염자의 5~10% 정도만 결핵에 걸리는데 이를 '발병'이라고 한다.

결핵 환자는 처음에는 마른기침을 자주 하지만 나중에는 가래에 피가 섞이는 혈담을 동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양의 객혈이 있을 수 있고, 병이 상당히 진행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비교적 일반적인 전신 증상으로는 무력감, 잦은 피로를 느끼며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감소 하거나 미열이 발생하고 밤에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결핵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고 다른 질병에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결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찰을 받아 발병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결핵 환자를 치료할 때 주의할 사항

과거에는 현재와 같은 좋은 치료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 또는 이웃에 대한 전염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 장기 입원 치료를 권장하여 왔으나 요즘은 올바른 치료를 받게 되면 전염성이 있던 환자라도 곧 전염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구태여 비싼 입원비를 들여가며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이 다른 방을 쓴다든지 식사를 따로 한다든지 또는 환자가 사용한 식기를 소독할 필요는 없다. 결핵 치료의 핵심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처방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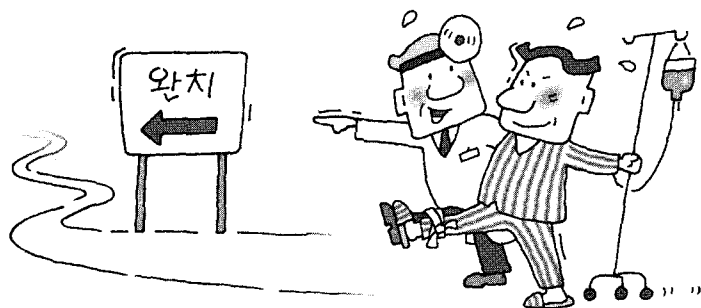


그림 공보화

